영남 산불 피해 복구…“문화유산·이웃 위한 자비행”

아름다운동행, 산불 직후 모금…21억원 모연해
고운사 등 6개 피해 사찰에 6억 5000만원 지원
진우 스님, 5월 26일 경북도청서 가전제품 후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문화유산 보존을 염원하며 조계종이 자비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3월 25일 발생한 대형 산불 직후 ‘산불재난 및 문화유산 복지지원기금’ 모연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2차에 걸친 긴급 지원을 단행했다. 향후 지속적인 복구와 보호 활동을 위한 계획도 수립 중이다.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수많은 생명과 소중한 문화유산에 큰 피해를 남겼다. 먼저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가 화마에 잿더미로 변했다. 고운사는 강한 바람을 타고 넘어온 비화(飛火)로 인해 30동의 건물 가운데 21동이 전소됐다. 소실된 전각 중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가운루와 연수전이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의성 운람사는 전각과 부속건물 7개동 등 모든 전각이 소실됐고 주변 산림도 큰 피해를 입었다. 비구니사찰 청송 보광사는 만세루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의성 만장사는 전각 7동 중 5동이 전소됐으며 나머지 두 동도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 용담사의 무량전(경북도문화유산자료)과 용담사 금정암 화엄강당(경북도문화유산자료)이 소실됐으며, 통일신라 석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던 의성 관덕동 석조보살좌상(경북유형문화유산) 또한 전소됐다.



산불 발생 후 아름다운동행에 재난 복구 기금이 모여졌고 5월 15일 현재 21억원 상당이 모연됐다. 사진은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고운사에 기금을 전달하는 모습.

전통 사찰들과 주변 마을이 갑작스러운 화마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자 조계종은 산불 발생 다음날 바로 아름다운동행을 중심으로 산불 재난 복구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와 말사, 교계 언론사, 포교·신도단체, 그리고 일반 불자들이 자발적인 기부가 이어졌고 5월 15일 현재 21억원 상당이 모연됐다.

아름다운동행은 모연을 바탕으로 피해가 심각한 사찰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을 시작했다. 2차에 걸쳐 고운사에 5억원을, 운람사와 만장사, 용담사 등 5개 사찰에는 피해규모에 따라 3~4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5월 26일에는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안동에 위치한 경북도청에 직접 방문,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 현재 임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에게 12억 상당의 가전제품을 전달한다. 이날 전달될 가전제품은 냉장고 800대와 텔레비전 1200대다. 가전제품은 전달식 이후 바로 영남지역 미분양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이재민 중 시군구에서 추천받은 20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계종은 추후 사찰 피해 현황 조사를 비롯해 이재민들의 규모와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해 꾸준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단순 복구와 지원을 넘어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장기 대응 계획도 구축해 나간다는 것. 또한 이재민들이 삶의 터전을 다시 일굴 수 있도록 지역복지와 연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전국 사찰과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준 덕분에 발 빠르게 1~2차 지원을 무사히 마치고 가전제품 지원도 준비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난지원이 아니라 사찰과 마을, 문화와 공동체를 함께 되살리는 작업”이라면서 “앞으로도 문화유산과 이웃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로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구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종회 직능 보궐 우경 스님 단독 입후보

5월 21일, 오후 2시 자격심사
6월 4일, 직능대표선출위원회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보궐선거에 우경 스님〈사진〉이 단독 입후보했다.

중앙종회 사무처는 5월 14일 오후 5시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사회) 보궐선거 입후보를 마감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단독 입후보한 우경 스님은 종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3년 범어사에서 보성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7년 직지사에서 성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사성암 총무국장, 용주사 기획국장, 사성암 총무국장 소임을 지냈으며 현재 사성암 주지다.

입후보 자격심사는 5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6월 4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종회 6월 10일…‘소임 제한’ 입법 논의

6월 10~14일, 5일 회기로 진행
안건접수 4일 · 종책질의 5일 마감

조계종 중앙종회 제234회 임시회가 6월 10~14일, 5일회기로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5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특별위원장·종책모임 회장 제11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제234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다. 임시회는 6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회한다. 안건접수 마감은 6월 4일, 종책질의 마감은 6월 5일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월 26일 열린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 이월 안건들이 대거 다뤄질 예정이다. 안건은 △종헌 개정의 건 △불기2568(2024)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결산검사의 건 △선거법·산중총회법·사찰법·중앙종회법·호계원법·청년출가 단기출가에관한특별법·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종단교무금납부에관한법·선학원정상화를위한특별법·총림법 개정안 등 종법 개정의 건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특별위원회활동보고의 건 등이다.

연석회의에서는 동림사 총림 지정 해제 후 대응 방안과 가톨릭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제정 저지를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제233회 임시회에서 제9교구본사 동화사 총림 지정 해제가 가결된 후 동화사 측에서 법원에 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제정 저지 활동은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가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종회에서는 ‘승려법’에 규정된 ‘스님 사정’에 따라 종단 소임을 구분하는 법안 제정도 다뤄질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이하 종헌종법특위)는 5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분과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승려법’ 제34조 6에 규정된 ‘승려 사정’ 구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선광 스님은 “‘출가 전 결혼생활로 자녀가 있으면 향후 민법의 상속과 유류지분이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면서 “인륜은 천륜이라고 해 세속에 있는 자녀와 유형무형의 관계가 지속돼 삼보정재가 가족에게 유출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선광 스님이 제안한 바에 따르면 ‘사정 갑’은 종단의 모든 소임을 수임할 수 있고 ‘사정 을’은 종정, 원로의장, 전계대화상, 총무원장, 종회의장, 호계원장 및 종헌종법 상 위원회 위원장을 수임할 수 없다. ‘병’과 ‘정’은 중앙(교구)종회의원,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선출직 종무원, 공찰 말사 6등급 이상 주지, 창건주 권리승계 등이 제한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위원 스님들은 “최근 속가 가족과의 재산분쟁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입법 추진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다만 몇몇 스님들은 “최근 늦은 나이에 출가하며 결혼 이력이 있는 출가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출가 이전 이력으로 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입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은호 기자

회당 대종사 제123주년 탄생절 기념불사

5월 10일 진각문화전승원서
“진각대도 새바람 일으키자”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5월 10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제123주년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 탄생절 기념불사’를 봉행하고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과 끝없는 정진을 서원했다.〈사진〉

이날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봉축사를 통해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께서 오신 거룩한 날을 맞아 기념불사를 봉행하는 참 의미는 우리에게 맡겨진 불사에 더욱 용맹정진하는 데 있다”면서 “섬김, 소통, 화합으로 감동교화를 실현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을 창종 80주년을 앞두고 포교와 교화를 위한 각종 준비를 하면서 일일우일신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진각종도들은 종조께서 불교를 혁신하고 전법하신 정신을 되새겨서 진각대도의 새바람을 일으키자”고 당부했다.

앞서 교육원장 정법 정사는 실행론 ‘심인진리의 생활화’, ‘생활불교의 본령’ 등 종조 법어를 낭독하며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서울교구청장 겸 총무부장 법운 정사는 강도발원에서 “종조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각자의 서원을 세우고 정진의 고삐를 다잡겠다”면서 “어두운 세상을 태양 같은 등불로 밝혀 희망이 꽃피고 행복이 넘치는 밀엄정토를 일구어 만다라 세상이 지금 이곳에서 피어나기를 서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회당 대종사 탄생지인 울릉도 총지심인당을 비롯해 국내·외 각 심인당은 이날 기념불사를 봉행하고 대종사 탄생의 뜻을 기렸다. 신중일 기자

바로잡습니다 본지 제1530호(5월 7일자) 1면 ‘불기 2569년 봉축법요식’ 기사 중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의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우암당 혜산 대종사 20주기 추모제 안내

내소사는 도량의 바위하나 나무 한그루에도 대충창주 우암당 혜산 대종사의 피땀이 스며있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도량입니다.
어느덧 대종사께서 열반에 드신지 20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저희들은 스님 영전에 깊이 참회합니다.
우암당 혜산대종사 후학들은 대종사님의 열반 20주기를 맞아 인연이 있는 사부대중과 함께 다음과 같이 추모제를 봉행합니다.

일시 | 불기 2569(서기 2025)년 6월 1일 (음. 5월 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내소사 대웅보전



불기 2569년 5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산 내소사 문도 일동